

북한 소설가 한설야(韓雪野)의 ‘평화’의 마음(1), 1949년*

구갑우(북한대학원대학교)

이 글은 1949년의 시점에서 지구적 수준의 반핵·반전 평화운동에 북한 대표로 참여했던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을 추적하려 한다. 즉, 한설야 개인이 1949년에 가지고 있던 평화의 개념을 찾는 작업이다. 1949년 파리평화대회를 전후로 한설야의 수필과 소설이란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을 읽기 위한 주요 대상들이다. 이 글의 한 가설은, 평화에 대한 북한적 마음체계와 한설야 개인의 텍스트가 충돌하면서 균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즉, 한설야가 구조의 담지자이지만 개별적 마음을 가진 자율적 행위자로서, 집합적 내지는 평균적 마음인 북한적 마음체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주제어: 북한, 한설야, 평화, 평화운동, 마음, 문학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3571). 그리고 이 연구는 2015학년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도 이루어졌음.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이지순 박사님과 익명의 심사위원들의 문학적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1. 문제설정

1949년 4월 9일, 북한의 소설가 ‘한설야’(韓雪野)는, 식민시대 노동운동가로 소련의 동방노력자공산대학 출신이며 북조선민주녀성동맹위원장을 역임한 ‘박정애(林正愛)’, 3·1운동의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기독교 사회주의자로 미국의 신학교에서 유학을 했고 남한에서 좌파 성향의 기독교민주동맹을 결성했던 ‘김창준(金昌俊)’과 함께 프랑스 파리로 출발했다. 약 이틀에 걸쳐 북소국경 지역까지 차로 이동한 한설야 일행은 소련의 연해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하여 사증발급과 기타 준비관계로 며칠을 체류했다. 4월 19일 모스크바를 떠나 여섯 시간 정도 지나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도착했다. 프라하에서 프랑스 대사관에 들러 프랑스 입국을 문의했고, 두 국가가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입국승인에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한설야 일행은 4월 22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입국허가를 받았고, 그날 오후 비행기로 파리에 도착했다. 14일이 걸린 여정이었다.)

한설야 일행이 파리로 간 까닭은, 1949년 4월 20일 개최예정인 “평화 옹호 세계 대회(World Congress of Advocates of Peace)”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차대전 종료 이후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반(反) 파시즘연

1) 이 여정은, 한설야, “파리 기행: 제1차 세계평화대회를 중심으로.” 『한설야 선집: 수필』(평양: 조선 작가 동맹 출판사, 19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한설야의 “파리 기행”에서는 “평화 옹호 세계 대회”와 같이 단어마다 띄어 쓰고 있다. 1954년에 간행된 『조선어 철자법』(평양: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이 그 띄어쓰기의 이론적 기초다. 그러나 2005년에 출간된 『조선문화어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붙여 쓰고 있다. 대중용 띄어쓰기 지침은 북한의 대중잡지인 『천리마』에 게재된다. 예를 들어, 『천리마』 2000년 6~7, 8호에 게재된 “새로 규정한 우리 글의 띄어쓰기” 참조. 이 글에서는 북한 문헌을 직접 인용할 때, 가능한 한 출간 당시의 띄어쓰기를

합이 해체되면서, 미국의 핵독점과 새로운 전쟁 가능성에 저항하는 반핵(反核)·반전(反戰) 평화운동이 조직되기 시작했고, ‘세계평화대회(World Peace Congress)’는 그 운동 가운데 하나였다. 이 평화대회 형태의 평화운동은 두 흐름의 결합이었다. 하나는, 소련공산당이 주도한 공산주의적 국제주의(communist internationalism) 조직인 코민포름(Communist Information Bureau, Cominform: Informbiro)을 매개로 전개된 평화운동이었다. 다른 하나는, 반파시즘 성향의 지식인들이 핵전쟁의 예방을 위해 조직한 비정부적 평화운동이었다. 1948년 8월 폴란드의 브로츠와프(Wroclaw)에서 ‘평화를 위한 세계지식인대회(World Congress of Intellectuals for Peace)’가 열렸고,³⁾ 1949년 4월 프랑스 파리와 체코의 프라하에서 ‘평화옹호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⁴⁾ 평화옹호세계대회

사용한다. 따라서 같은 표현이 다른 띄어쓰기를 가질 수 있다. 두 따옴표에 들어 있는 인용문은 북한의 글들이다. 한철야의 문학작품의 제목과 인용도 두 따옴표를 사용한다. 이 원칙은 국내외 문헌의 인용에도 적용된다.

- 3) 공산주의자가 주도한 평화캠페인이었지만 다수의 비공산주의도 이 대회에 참여했다.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유네스코(UNESCO) 사무총장이었던 줄리안 헉슬리(Julian Huxley)가 의장직을 수행했다. 이 헉슬리는 『멋진 신세계』의 작가 헉슬리(A. Huxley)의 형이다. 의장이었던 헉슬리는 이 대회를 회고하면서, “단어의 일상적인 의미에서 토론은 없었다”고 썼다. 소비에트작가동맹(Union of Soviet Writers)의 의장이었던 파테에프(Alexander Fadeyev)가 미국에 대한 독설을 쏟아냈다고 한다.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았다는 기록도 있다. 유진 오닐, 앙드레 말로, 장 폴 사르트르와 같은 유명 작가들에 대해, 파테에프는 “만약 하이에나 타자를 칠 수 있고 승냥이가 쓸 수 있다면, 그들이 그러한 작품을 쓸 것이”라고 비아냥했다고 한다. 비공산주의 계열의 참가자들을 당혹스럽게 한 발언이었다. 1948년 9월 코민포름은 “항구적 평화를 위하여, 인민의 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잡지에서 브로츠와프대회를 평화와 문화의 수호를 위해 지식인들이 함께 한 것으로 평가했다. L. Wittner, *One World or None: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Through 195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pp.175~177.
- 4) 파리 세계평화대회 직전인 1949년 3월,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문화과학회의(Cultural and Scientific Conference for World Peace)’가 개최되었다.

는 ‘여성국제민주연합(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과 브로츠와프대회에서 결성된 ‘국제지식인연락위원회(International Liaison Committee of Intellectuals)’가 공동으로 조직한 운동이었다.⁵⁾ 72개국의 대표가 참가한 세계평화대회가 두 도시에서 열린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북한을 비롯한 중국, 폴란드,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사회주의국가 대표단의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리 세계평화대회 이틀 후인 1949년 4월 22일 프랑스 정부는 특이하게도 북한과 몽골대표단의 프랑스 입국을 허용했다.

이 글은, 1949년의 시점에서 지구적 수준의 반핵·반전 평화운동에 북한 대표로 참여했던 북한 소설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을 추적하려 한다. 즉, 한설야 ‘개인’이 1949년에 가지고 있던 평화의 개념을 찾는 작업이다. 1949년 파리대회를 전후로 한설야의 수필과 소설이란 형태로 고정되어 있는 텍스트(text)가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을 읽기 위한 주요 대상들이다. 문학작품을 텍스트로 설정한 이유는, “삶을 위한 장비”로서 그 존재이유가 있는 문학이 대중의 정서를 재현하고 구성하는 매체이고, 특정 정세 속에서 서로 다른 태도와 선택을 만들게끔 한다는 의미에서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⁶⁾ 즉, 문학이 비정치적일 때조차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고 한다면,

5) 1945년 11월 파리에서 창립된 여성국제민주연합(WIDF)은 진보적인 좌파-페미니스트 국제조직이었다. 공산주의와 강한 연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독립적인 여성조직 등도 회원으로 참여했다. 냉전이 전개되자 WIDF는 소련을 지지했다. 그러나 WIDF는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도 소련의 전선조직도 아니었다. WIDF가 평화운동에 개입한 이유는, 평화가 조직의 목적인 여성 및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F. de Haan, “The 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WIDF): History, Main Agenda, and Contributions, 1945-1991,” http://wasi.alexanderstreet.com/help/view/the_womens_international_democratic_federation_widf_history_main_agenda_and_contributions_19451991.

문학이란 언어적 실천은 역사적 관계를 현현하는 정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⁷⁾ 달리 표현한다면, 문학이 인간의 회로에락을 위한 전략을 담고 있고, 문학이 정치와 분리될 수 없다면, 문학적 실천은 미적 대상을 매개로 적과 친구를 선택하는 전략일 수 있다.

기행문과 같은 역사적 텍스트가 있음에도 소설이란 허구의 텍스트를 함께 보는 이유는, 소설가가 처한 역사적 맥락(context)에서 그 맥락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다. 1949년의 시점에 한설야의 이름으로 출간된 소설이 그 대상이다. 그 이해는 허구의 소설 쓰기, 즉 미적 형상화의 원천이다. 따라서 소설이란 텍스트에서 현실의 이해에 기초한 반영으로서 왜곡은 불가피하다. 역사적 사실을 반복한다면, 문학이라 할 수 없다. 현실을 작가가 미적으로 전유할 때, 주체의 상대적 자율성은 제고된다. 현실의 과잉과 부재는 작가의 이해의 산물이다. 문학이 과잉정치/과소정치를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그 정치성이 문학의 미적 성취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⁸⁾ 무목적의 미로서의 문학과 목적의 도구로서의 문학이 길항하는 지점이다.

‘1949년’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구적 수준에서 전쟁도 평화도 없는 상태인 냉전(冷戰)이 구조로 정착되는 시점이면서 동시에 반핵·반전

6) K. Burke, “Literature as Equipment for Living,” *Direction 1*, Reprinted in D. Richter(ed.),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Boston: Bedford Books, 1998).

7) 자크 랑시에르, 『문학의 정치』, 유재홍 옮김(고양: 인간사랑, 2009); 리디아 라우, 『언어횡단적 실천』, 민정기 옮김(서울: 소명출판, 2005).

8)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언명은 그 지점에 대한 통찰이다.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거나 지지 방문을 하고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논문을 쓸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사회참여와 참여시 사이에서의 분열, 이것은 창작 과정에서 늘 나를 괴롭히던 문제이다.”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서울: 그린비, 2014), 16쪽.

평화운동이 전개된 연도이기 때문이다. 소련관 냉전적 인식이 북한으로 수입되어 국제정치경제에 관한 북한적 ‘마음체계(system of mind)’가 굳어지는 과정에서 북한은 열전(熱戰)을 준비하며 평화운동에 참여했다. 특정한 마음체계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국면에서, 이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와 상상력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체로, 주체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의도성(intentionality)’을 담지하고 있는 총체적 심리의 체계다.⁹⁾ 정치권력이 생산하는 북한판 평화의 마음체계가 한설야의 텍스트를 호명하거나 또는 한설야의 ‘체현된 마음(embodied mind)’을 주조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¹⁰⁾ 반대로 그 텍스트는 대중들에게 그 마음체계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글의 또 다른 가설은, 북한적 마음체계와 한설야 개인의 텍스트가 충돌하면서 균열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즉, 한설야가 구조의 담지자(agent)이지만 개별적 마음을 가진 자율적 행위자로서, 집합적 내지는 평균적 마음인 북한적 마음체계에서 이탈할 수 있는 문학작품을 생산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¹¹⁾ 한설야란 개별 인간의 마음

9) 마음의 레짐과 마음체계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마음이 한 개체가 자신의 의도성은 물론 다른 개체의 의도성을 인식할 때 성립하는 개념이란 점에서 이 글에서는 마음체계란 용어를 사용한다. 마음의 레짐은,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파주: 문학동네, 2009), 22~24쪽. 의도성을 마음의 핵으로 정의하는 글은, 대니얼 대닛, 『마음의 진화』, 이희재 옮김(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참조.

10) 비데카르트적 마음이론은, 뇌 과정과 더불어 몸의 구조와 과정을 포함하는 체현된 마음, 유기체의 마음과정 일부가 세계에 대한 행동에 의해 구성된다는 연장된(extended) 마음, 인지과정이 환경 속에 내재해 있다는 내재된(embedded) 마음,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이 그것을 만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작동적(acted) 마음을 상정한다. 결국 이 마음들은 체현된 마음과 연장된 마음으로 환원되고 이 두 마음의 결합된(amalgamated) 마음으로 정리된다. M. Rowlands,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2010).

11) 국제관계학에서 정보의 부족과 우연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설 또는 허구

의 한 구성요소인 의식적 자이는 집합적 마음체계를 복사하려 하겠지만, 문학이란 텍스트의 쓰기는 그 의식적 자이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감성의 발현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북한적 마음체계의 ‘대변인’으로서 한설야와 소설가로서의 한설야의 균열이다.¹²⁾ 특히 북한의 작가들이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을 창작의 방법으로 선택할 때,¹³⁾ 새로운 사회주의

(fiction)가 분석을 위한 매개로 사용되곤 한다. 더 나아가 문학텍스트의 읽기와 사용을 넘어 국제관계학에서 소설 쓰기와 같은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즉, 소설에 관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소설 쓰기’를 하는 소설적 또는 허구적 국제관계학의 발견이다. S. Park-Kang, “Fictional IR and Imagination: Advancing Narrative Approach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1(2015). 이 글의 ‘부분적’ 목적도 한설야의 수필과 소설을 매개로 국제관계학의 ‘소설’을 쓰는 것이다. 평균과 개별의 충돌은 소설 또는 이야기를 통해 밝혀질 수밖에 없다.

- 12) 어떤 텍스트가 의식적 자아와 감성의 충돌을 수반할 때만 문학으로 읽힐 수 있다. 한 진화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관료조직을 닮았다고 말한다.” “마음은 이사회, 홍보부, 대변인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이고, 이 조직에서 이사회가 비합리적 선택을 했을지라도 홍보부와 대변인은 마치 합리적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게 된다. 이 논리는, “대변인, 즉 의식적인 자이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전개된다. 전중환, “내 속에 ‘나’는 없다,” 『경향신문』, 2015년 11월 18일. 이 글의 일부는 한설야가 정치권력의 ‘대변인’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의 탐색이다. 그가 ‘소설가’이기 때문이다.
- 13) 1920년대 중반 소련에서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미적 실험이 이루어졌지만, 1929년경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당적 통제가 강조되었고 1934년 소련작가대회에서는 19세기의 문화예술사조인 리얼리즘에 사회주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문화예술의 창작방법으로 선택되었다. 그 중심에는 코민포름의 이론가였던 즈다노프(A. Zhdanov)가 있었다. ‘어머니’란 소설의 작가 고리끼(M. Gorky)도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였다. “Soviet Cultural Policy-the Liberal Period,”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New York: Random House, 1960), pp.269~271; “Socialist Realism: Gorky, *Soviet Literature*,”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New York: Random House, 1960), pp.41~45.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번역된 냉전에 기초하여 “미학적 절대 이념”으로 채택된 시점은 1947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 출범 즈음이었다. 유임하, “북한 초기문학사 ‘소련’이라는 참조점,” 『한국어문학연구』, 57집(2011); 이민영, “1947년

적 삶을 형상화하기 위해 부정적 현실을 서술할 수밖에 없고 그 순간 정치권력이 주조하고자 하는 마음체계와 충돌하는 마음의 일단이 드러날 수 있다. 이 질문은 한설야의 텍스트를 읽는 독자도 텍스트의 지시로부터 이탈하는 읽기, 즉 다른 텍스트와 접촉하여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연장될 수 있다.¹⁴⁾

2. 사회주의진영의 냉전적 마음체계와 평화의 개념

미국은 1945년 8월 이차대전 종료 직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대한 핵폭탄 투하를 통해 핵무기의 파괴력과 핵무기 사용의지를 시현했다. 미국의 핵독점은 냉전체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미묘하지만 중요한” 사건이었다.¹⁵⁾ 사건들의 연쇄와 그 사건들의 우연성과 경

남북 문단과 이념적 지형도의 형성.” 『한국현대문학』, 39권(2013) 참조. 북한의 평론가 안함광은 1956년 6월 초판이 발간된 『조선문학사』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realism)의 기본원칙으로, “문학의 당성 원칙”, “애국주의적 인도주의적 뻘뻘스의 표현”, “긍정적 주인공의 지배적 창조”, “혁명적 량민주의” 등을 언급했다. 인용은, 안함광, 『조선문학사』(연길: 연변교육출판사, 1957)을 1999년 한국문화사가 영인한 판본에서다.

14) 하나의 문학텍스트로 고정되는 순간, 그 텍스트에서는 독자와 저자 둘 다 사라지게 된다. “독자는 글쓰기의 행위에 부재하고, 작가는 글 읽기의 행위에 부재” 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의사소통이 없게 된다. 따라서 읽는다는 것은 해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폴 리코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서울: 아카넷, 2002), 159~192쪽. 이 글도 1949년에 생산된, 1949년을 해석한 다른 텍스트들과의 접촉을 통해 한설야의 텍스트에서 보이는 마음과 보이지 않는 마음을 해석하는 작업이다.

15) D. Holloway, “Nuclear Weapons and the Escalation of the Cold War, 1945-1962,” in M. Leffler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378~380쪽. 핵무기의 출현이 국제정치에 미친 결과가 체제전복적이었다는 평가는, 박건영, “핵무기

로의존성이 구조를 (재)생산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다사건적(多事件的, eventful) 접근에 따르면,¹⁶⁾ 이차대전 이후 냉전체제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건은, ‘1947년 6월’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G. Marshall)의 하버드대학 연설이다.¹⁷⁾ 미국이 서유럽에 대한 경제지원을 담은 유럽경제부흥계획안(European Recovery Program)인 ‘마셜플랜(Marshall Plan)’을 추진하자, 소련이 ‘두 진영론’으로 맞섰고, 결국 냉전체제가 형성되었다는 논리다.¹⁸⁾

마셜플랜은 미국의 핵독점을 전제할 때 가능한 기획이었다.¹⁹⁾ 미국은 핵독점 때문에 군사력경쟁보다 서유럽의 경제재건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셜플랜은 미국과 서유럽을 경제와 안보 양 측면에서 하나의 진영으로 만드는 ‘서방(the West)’을 상상하게 한 계기였다.²⁰⁾ 1947년 3월의 트루먼 독트린에는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정도로 사실상 침묵했던 소련은 6월의 마셜플랜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반응했다.²¹⁾

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출판부, 2012), 12쪽.

- 16) 채오병, “식민구조의 탈구, 다사건, 그리고 재접합: 남한의 탈식민 국가형성, 1945~1950,” 『담론201』, 13권 1호(2010).
- 17) 김영호,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2001). 마셜플랜을 냉전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분기점이 된 사건으로 해석할 때, 소련의 세계혁명 추구라는 팽창정책을 냉전의 원인으로 보는 전통주의적 시각을 문제화한다. 냉전의 기원과 관련하여 수정주의적 시각은 미국의 책임을 강조한다.
- 18) 마셜플랜의 전(前) 사건은 그리스와 터키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이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한 ‘1947년 3월’의 ‘트루먼 독트린(Truman Doctrine)’이다. 이 독트린에서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이항대립적 사고가 나타나고 있다.
- 19)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정철·강규형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0), 57~59쪽.
- 20) W. Hitchcock, “The Marshall Plan and the Creation of the West,” in M. Leffeler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pp.154~159.

소련은 ‘1924년’, 스탈린(J. Stalin)이 트로츠키(L. Trotsky)의 영구혁명론을 비판하고 이른바 ‘일국사회주의(socialism in one country)’를 제안한 이후,²²⁾ 자국의 안보를 국가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차대전 종료 이후에도 영미의 산업적, 군사적 우위를 고려하면서 서방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특히 미국의 ‘핵투하’ 이후 힘의 균형이 소련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인지했지만, 서방과 결전을 불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²³⁾ 그러나 마셜플랜을 자국 및 동유럽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소련은 ‘1947년 9월’ 코민포름을 창설했다.

소련,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산당들이 참여한 코민포름은, 1919년에서 1943

21) 미국의 대소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의 설계자인 케난(G. Kennan)이 X라는 필명으로 *Foreign Affairs* 에 “The Source of Soviet Conduct”를 발표한 시점은 1947년 7월이다. 냉전 봉쇄정책을 정치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군사력의 확대를 선호하며 국제질서를 구축하던 자유주의 기획의 한 형태로 보는 시각은,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서울: 후마니타스, 2015), 131쪽.

22) J. Stalin, “Stalin on Socialism in One Country,”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New York: Random House, 1960), pp.257~261.

23) V. Pechatnoy, “The Soviet Union and the World, 1944~1953,” in M. Lefeller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90~111. 이 논문에서는 1946년 봄을 반파시즘 연합의 해체 시점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주재 소련대사 노비코프(N. Novikov)는 정부에 보낸 보고서에서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고, 당시 소련 정부는 미국이 세계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북한의 김일성도 1946년 9월에 비슷한 인식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한편으로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애호하는 인민들의 역량이 파시스트잔재세력을 숙청하고 세계의 안전과 사회진보를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는 반면에 다른편으로는 세계를 다시금 전쟁의 참화어로 이끌어 가려는 국제반동이 대두하고있는것으로서 특징지어집니다.” 김일성,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김일성전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86쪽.

년까지 활동한 공산주의 국제주의 조직인 코민테른(Communist International, Comintern)과 달리, 소련공산당이 주도하지만 형태상 ‘자발적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²⁴⁾ 코민포름을 만드는 회의에서 소련의 즈다노프(A. Zhdanov)는 “국제정세보고”에서 이차대전의 종료 이후 ‘사회주의체제 대 자본주의체제’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²⁵⁾ 즈다노프는 트루먼 독트린을 “적극적으로 민주적 인민에 반대하는 모든 반동적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원”으로 비판한 후, 마셜플랜을 유럽국가들이 미국에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으로 규정했다. 코민포름의 발족 선언문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은, ‘제국주의적 반민주진영’ 대 ‘반제국주의적 민주진영’의 대립 구도로 나타났다.²⁶⁾ 제국주의적 반민주진영인 미국과 영국이 이차대전 이후 “새로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코민포름의 주장이었다. 코민포름의 ‘선언’은 이차대전을 계기로 형성된 반과시즘 연

24) S. Fay, “The Cominform,” *Current History*, Vol.14, No.77(January, 1948). 예를 들어 코민포름의 본부는 소련이 아니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Belgrade)에 위치했다. 코민포름에 참여했던 동구국가의 공산당들은 체코의 프라하(Prague)를 선호했지만, 소련은 이차대전 동안 독자적인 빨치산(partisan) 활동을 통해 공산화에 성공한 유고슬라비아의 영향권 이탈을 막기 위해 코민포름의 사무국을 베오그라드로 결정했다고 한다. 김철민, “코민포름 분쟁(1948)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시각과 대응전략,” 『슬라브연구』, 18권 1호(2002). 그러나 소련의 다른 선택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아는 소련의 패권에 도전하며 비동맹의 길을 가게 된다.

25) A. Zhdanov, “The ‘Cold War’ and the Cominform,”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 pp.155~160.

26) “Cominform Resolution and Manifesto,” *Current History*, Vol.13, No.76(December, 1947). 스탈린은 ‘1942년’ 10월혁명 25주년 기념연설에서 이탈리아·독일연합 대 영국·소련·미국연합이라는 두 진영론을 제시한 바 있다. 스탈린은 영소미연합 내부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체제의 차이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의 적에 맞선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J. Stalin, “Stalin on the Two Camps,”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 pp.128~129.

합의 해체를 의미하는 담론이었다.

냉전의 정치적 기초인 진영들(camps)이 강제든 협상이든 동의든 초국가적 엘리트 또는 계급이 이념을 공유할 때 구성되는 것이라면, 코민포름의 국제정치경제 인식은 반파시즘 연합이 해체된 조건에서 다른 진영을 생각할 수 없었던 북한에도 수입되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위대한 쏘련군대의 결정적역할로 죄악과 억압 불행과 전쟁의 마즈막 발원지인 군국주의 일본은 조선에서 격퇴되었다”고 생각하는 북한에게 코민포름의 국제정치경제 인식은 명령에 버금갔을 수 있다.²⁷⁾ 유럽에서의 미소대립으로 시작된 냉전이 동아시아로 수입되는 시점도 ‘1947년경’이다.²⁸⁾ 미국은 1947년경 중국의 내전과 인도차이나 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개입을 본격화했다. 한반도에서도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휴회인 결렬로 가게 되면서, 냉전과 냉전의 한반도적 특수형태인 분단이 가속되었다. 1948년 3월 김일성은, 국제정세의 “본질적 변화”로 “자본주의체제, 즉 제국주의반동진영이 현저하게 약화된 반면에 쏘련을 선두로 하는 국제민주진영이 형성되고 결정적으로 강화”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²⁹⁾ 1949년 2월 북한에서 남로당을 대표했던 박헌영의 글에서 볼

27) 『朝鮮中央年鑑 國內篇 1949』, 57쪽, ‘1958년’까지도 “위대한 쏘련의 무력에 의해 해방된”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김희중, “미제의 침략에 의한 남조선의 참상,” 『근로자』, 제3호(1958.3.1). 소련도, “소련의 무력이 일본의 식민적 억압으로부터 한반도를 해방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I. D. Ovsyany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p.68. ‘1956년’ 중소의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인 이른바 “8월중과투쟁” 이후 북한 문헌에서 ‘위대한 소련’이란 표현은 감소했다. 정성임, “북·러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과주: 한울, 2007), 303쪽.

28)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개념적 재구성과 ‘냉전,’” 『냉전과 동아시아 분단체제』, 한국냉전학회 창립 기념 학술대회(2015.6.25).

29)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

수 있듯이, “민주주의진영과 제국주의진영”의 대립, 즉 소련진영 대 미국진영의 대결로 코민포름 창설 이후 소련의 ‘국제정치’ 독해를 복사하고 있었다.³⁰⁾ 그리고 이 진영대립을 생산하는 외교정책을 국가성격의 연장으로 생각했다. “쏘베트국가의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쏘베트 외교정책의목적”이란 표현은 북한이 수입한 외교정책론이라 할 수 있다.³¹⁾

진영대립이란 냉전적 마음체계의 형성은, 냉전적 틀 내에서 평화개념의 재정의하게끔 한 계기였다. 코민포름의 반전(反戰) 구호는, 소련 사회주의 대 미국자본주의의 대립을 ‘평화세력 대 전쟁세력’으로 치환했다. 코민포름은 평화가 공산당 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³²⁾ 평화를 사회주의와 등치했다. 불세비키혁명 전야(前夜)인 1916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쓴 레닌의 글 『제국주의, 자본주의 최고의 단계』에서 제시된 것처럼 코민포름은 제국주의단계에서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수용하고 있었지만,³³⁾ 제

전집』, 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328쪽.

- 30) 중국공산당도 이차대전 이후의 정세를 비슷하게 읽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세계에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의 상호 대치를 특징으로 하는 양극 구도가 점차 형성되었고 미국과 소련 간의 모순, 제국주의와 평화민주주의의 두 진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두 제도가 서로 대항하고 뒤엉킨 국면이 나타났다.”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역사』, 상권, 홍순도·홍광훈 옮김(서울: 서교출판사, 2014).
- 31) 진영론은, 박현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대외정책에관하여,” 『인민』, 2월호(1949); 외교정책의 목적은, 드·브·레빈, “외교의 개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인민』, 3월호(1949). 두 글 모두 『북한관계사료집』, 37권(과천: 국가편찬위원회, 2002)에서 인용.
- 32) P. Deery, “The Dove Flies East: Whitehall, Warsaw and the 1950 World Peace Congres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Vol.48, No.4(2002.12).
- 33) 블라디미르 일리히 레닌, 『제국주의론』, 남상일 옮김(서울: 백산서당, 1988). 이 책의 번역 시점을 보면, 한국의 민주화 이후 사회주의이론이 공개적으로

국주의가 사회주의혁명의 전아라는 레닌의 비약은 생략되어 있었다.³⁴⁾ 즉, 미국의 핵독점체제하에서 힘의 열위상태에 있다고 생각한 소련과 사회주의진영은 평화에 이르는 방법으로서 폭력을 동반하는 ‘정의의 전쟁(just war)’을 의제화하지 않았다.³⁵⁾ 즉 냉전 초기 소련의 평화개념의 핵심어는 반전과 미국의 핵독점에 맞서는 ‘반핵(反核)’이었다.³⁶⁾ 소련공산당 국제부는 ‘소비에트평화위원회(Soviet Peace Committee)’란 민간단체를 통해 국제적 평화운동에 개입했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평화공세(peace offensive)’를 미국을 무장해제하기 위한 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³⁷⁾

수입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 34) 1차대전 전야인 1912년 바젤(Basle)에서 열린 국제적 사회주의계열의 평화운동 대회에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와 함께 “전쟁에 반대하는 전쟁”이란 구호가 걸려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반전을 목표로 한 사회주의계열의 평화운동은 임박한 전쟁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운동의 기반인 노동자계급이 자국의 전쟁참가에 찬성하는 역설적 현상을 목도해야 했다. 그러나 유럽의 노동자계급이 전쟁을 축하했다는 사실이 신화로 반박되기도 한다. K. Callahan, “The International Socialist Peace Movement on the Eve of World War I Revisited: The Campaign of ‘War Against War!’ and the Basle International Socialist Congress in 1912,” *Peace & Change*, Vol.29, No.2(2004).
- 35) 1948년 9월 미국의 트루만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핵전쟁에 관한 정책(Policy on Atomic Warfare)”을 수립했고, 소련과의 전쟁에서 핵공습(atomic air offense)을 중심교리로 채택했다. D. Holloway, “Nuclear Weapons and the Escalation of the Cold War, 1945~1962.”
- 36) 당시 소련의 입장을 ‘반전평화론’으로 정리하고 있는 글은,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제83호(2012); 반핵은, G. Wernicke, “The Unity of Peace and Socialism? The World Peace Council on a Cold War Tightrope Between the Peace Struggle and Intrasystemic Communist Conflicts,” *Peace & Change*, Vol.26, No.3 (2001).
- 37) “Report on the Communist ‘Peace’ Offensive; A Campaign to Disarm and Defeat the United States,” Prepared and Released by th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1951.4.1).

한반도에서도 1890년대 후반 “국가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의 의미”로서 평화개념이 수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지만,³⁸⁾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한반도의 사회주의자들은 평화의 개념, 목표, 주체와 방법 등에 대한 다른 수입경로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집권세력은 특히 식민지시대 무장투쟁을 경험한 바 있었다. 반전·반핵은 냉전 초기 북한도 공유하는 평화의 내용이였다. 특히 반핵은 북한의 국가수립 이전부터 언급되는 담론이였다. 1947년 3월 13일 『로동신문』에는 “원자무기금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가 8월 24일에는 “누구가 원자무기의 금지를 반대하느냐” 등의 기사가 실렸다. 원자폭탄을 금지하는 문제의 토의를 미국과 영국이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도 1949년 2월 24일 『로동신문』에 게재되였다. 이를 뒤인 2월 26일에도 소련이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를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있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반면 반전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른바 “국제민주력량”에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자유와 독립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피압박인민들의 거대한 힘”을 포함시킨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 중국인민해방군이 벌이는 전쟁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³⁹⁾ 북한판 평화개념이 수입이었음에도 ‘분단’과 연계되어 ‘변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계기가 이 지점이였다. 1949년 1월 김일성 신년사의 제목은, “국토의 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쫓기하자”였다. 1949년 3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해서 한반도의 무력통일에 대한 소

38)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 개념 도입사,”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과주: 창비, 2009).

39)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338쪽. 소련의 반전평화론과 동아시아 해방전쟁론의 충돌에 대해서는,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

련지도부의 의견을 문의했지만, 스탈린은 부정적으로 대답했다.⁴⁰⁾ 김일성은 모스크바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을 만나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거시켜야” 통일이 가능하고, “남북조선 로동당에 대한 통일적지도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국토완정과 조국의 통일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더욱 힘있게 전개될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국투쟁에 대하여 다른 나라 류학생들에게 광범히 소개선전하며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각국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유학생들에게 보내는 김일성의 당부였다.⁴¹⁾ 1949년 파리에서 세계평화대회가 열릴 즈음, 냉전적 마음체계를 수용한 북한의 평화개념은, ‘반핵’과 ‘평화의 통일로의 변용’, 그리고 ‘폭력적 방법’에 의한 평화로서의 통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1949년 한설야의 수필과 평론: ‘대변인’의 마음

북한의 ‘반핵담론’은 국제적 평화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국내 정치적 계기를 가지게 된다.⁴²⁾ 1949년 2월 여성국제민주연합과 국제지식

40) 스탈린이 제시한 이유는 북한군의 열세, 미군의 주둔, 미소의 38선에 대한 합의였다.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1996), 96~98쪽. 한 일본 저자에 따르면, 김일성과 박헌영이 무력통일 구상을 타진한 시점은 1949년 8월이다. 시모토마이 노부오,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90쪽. 1949년 3월 김일성은 소련을 방문했을 때,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고 그에 의거하여 소련의 무기를 받는 대가로 금과 쌀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소련의 무기 공여는 원조가 아니라 사업이었다는 평가다. 기무라 미스히코·아베 게이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서울: 미지북스, 2009), 9장.

41) 김일성, “쏘련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있는 우리 나라 류학생들과 한 담화,” 『김일성전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50~155쪽.

인연락위원회는 파리 세계평화대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코민포름은 파리에서 열릴 세계평화대회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예측하기도 했다. 1949년 2월 21일 김일성은 “녀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문예총중앙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인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가할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⁴³⁾

우리 대표단이 평화옹호세계대회에 참가하여 국제적인 평화옹호운동에 적극 합세하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동족상쟁의 위험을 없애며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을 이룩하며 민주건국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북한은 이 자리에서 김일성이 세계평화대회 참여를 국내적 차원의 대중운동과 연계하기 위해,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의 소집과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결성을 요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1949년 3월 24일 평양에서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를 개최했다.⁴⁴⁾

이 대회를 주도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소설가 한설야였다. 식민지 시대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KAPF)’

42) 북한 핵담론의 원형에 대해서는,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17권 1호(2014).

43)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147~149쪽.

44) 북한의 기록에 따르면, 31개 사회단체들이 이 대회를 주최했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회관계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78쪽. 북한이 세계대평화대회 참가를 위해 조직한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2015년 6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는 남한, 북한,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정례적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시작이다. 이 모임에 조선평화옹호전국위원회(Korean Peace Committee)의 대표가 참가했다.

의 일원이었던 한설야는, 해방 이후 김일성을 만나고 나서 김일성을 ‘영웅’으로 형상화하는 글을 썼다. 1946년 5월 『정로』에 『김일성장군 인상기』를 연재했고, 같은 해 9월에는 김일성의 흔적을 찾아 중국 동북지역을 답사한 이후, 『英雄 金日成장군』을 집필했다. 이 책은, “民主文壇의巨星 韓雪野씨의 붓으로된” 작품이라는 소개와 함께 1947년 남한에서 발간되기도 했다.⁴⁵⁾ 또한 한설야가 1946년에 발표한 소설 『혈로(血路)』는 북한의 수령형상문학의 원조로 평가되고 있다.⁴⁶⁾

한설야의 식민지시대 작품 가운데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과도기”가 농민계급 출신 노동자에서 혁명적 노동자로 전이해 가는 ‘주체’의 ‘전형’을 다루고 있음을 볼 때,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영웅적 주체로서 김일성에 주목했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다른 한편, 카프의 주류가 아니었던 한설야의 권력의지가 김일성을 선택하게끔 했다는 해석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설야의 이 ‘민첩성’은 그의 정치적 지위에도 반영되었다. 한설야는 1946년 8월 ‘북조선로동당’이 창립되었을 때, ‘북조선예술총련맹’ 위원장 자격으로 북로당 중앙위원회 43명 가운데 1명으로 참여한 유일한 ‘문인(文人)’이었다. 당시 북로당의 강령 제13항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투쟁하는 연방과 평화를 애호하는 각 국가 각 민족들과 튼튼한 친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것이었고,⁴⁷⁾

45) 韓雪野, 『英雄金日成將軍』(釜山: 新生社, 1947). 이 책의 인쇄소는 서울에 있는 ‘高麗文化社’였다. 1949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재로 쓰기 위해 발행한, 연안과였던 崔昌益이 편집한 『朝鮮民族解放鬪爭史』에서도 “김일성장군의 빨찌산운동”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설야의 작품만큼 영웅으로 형상화하고 있지는 않다.

46) 1962년 숙청된 한설야는 1990년대 초반 숙청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복권되어 2003년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묻혔다. 한설야의 김일성의 수령형상화 작업을 재평가한 북한 역사의 회귀한 사건이다. 1954년 간행된 한설야의 수령형상화 소설 『력사』가 다시 인용되고 있다. 김룡준, “한설야와 장편소설 『력사』,” 『사회과학원학보』, 82호(2014).

한설야의 세계평화대회 참가는 이 강령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기도 했다.

한설야가 서명자의 첫 머리를 장식한 1949년 3월 24일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은 이차대전 종료 이후 “평화가 확립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당시 정세인식의 일단을 보여주는 구절이다.⁴⁸⁾

대전후 날아가면갈수록 세계에는 또다시 새로운전쟁의위험이 커지고있다. 그것은 전후의 세계제패를 꿈꾸며 반동의선두에선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전쟁을 도발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전세계인민은 평화를 옹호하며 전쟁을 반대하며 국제반동파들을 반대하여 총결기하였다.

한설야의 1946년 7월 『문예전선』에 발표된 작품인 “모자: 어떤 소비에트 전사의 수기”에서 “독일 파시스트”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미제국주의가 아니라 미국으로 중립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⁴⁹⁾ 한설야의 마음에서, 미국은 미국에서 “미제국주의”로 “새전쟁방화자”로 옮겨 가고 있었다.⁵⁰⁾ 반면,

47) 기광서, “북로당 창설 과정에 대한 검토,” 2014 북한연구학회 동계학술회의 발표문.

48)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 『평화옹호세계대회 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49) 북한에 진주한 소련군의 부정적 행태 및 “행패”를 묘사했던 소설 “모자”는 개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남원진, 『한설야의 욕망, 칼날 위에 춤추다』(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3), 103~137쪽.

50) 한국전쟁의 과정과 이후에 발간된 한설야의 소설에서 미국은 “승냥이”이자 “원썩”가 된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승냥이를 “포악하고 교활한 제국주의 침

소련은 평화의 옹호자로 묘사된다. “세계의 항구한평화와 인류의 자유행복을 위하여싸우는 쏘베트인민들”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⁵¹⁾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를 미제국주의 타도와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조국의 남반부를 자기 식민지로 군사기지로 변화시키는 미제국주주의들의 침략정책을 타도하”고 미군을 “즉시철거케” 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북한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에서는 한설야를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평화옹호전국연합대회 참가자들은, “작가 배우 미술가 과학자 기사 교수 노동자 농민 기업가 상인 종교가 녀성 청년 및 사회활동가” 등으로 호명했던 사실을 상기해보면 여성계의 박정애, 기독교계의 김창준과 같은 국제적 감각을 가진 대표단의 구성은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²⁾ 북한에서 국가건설 초기 이른바 “인테리”의 활용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⁵³⁾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당시의 세계평화운동을 문화예술인이나 과학자와 같은 지식인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대표단 구성이

략자나 흉악하고 악독한 자를 비겨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다. 1951년 발표작 “승냥이”와 1952년 『로동신문』에 연재된 『대동강』 그리고 1955년 조선작가동맹출판사가 간행한 『대동강』 등이 한설야의 전형적인 ‘반미소설’이다.

- 51)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
- 52) 당시 미주 신문에는 대표단으로 북한 초기 한설야와 버금갈 정도의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던 소설가 리기영이 언급되었다고 한다. 정병준,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과주: 돌베개, 2015).
- 53) 김일성은 국내파 공산주의자인 리주하, 주녕하, 오기섭이 건설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을 무시한 좌편향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사회주의건설과 지식인의 역할에 관해서는, 신언갑, 『주체의 인테리리론』(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참조.

었다.

파리평화대회의 핵심 의제는, ‘평화’를 위한 반미(反美)와 반(反)자본주의였다.⁵⁴⁾ “쏘련을 반대하는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제국주의”가 “군비축소에 관한 모든제의”를 “거절”했고, “원자무기를 비법행위로 규정하지는 제의도 같은 운명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셜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또다시 그들은 딸라로 우리의피를 사라고하는것입니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자본주의 기업의 금융의 “반동정치(리운의 원천)”를 전쟁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연장이었다. 그러나 이 평화운동은 “실질적으로 무당파적 민주 운동”이었고, ‘반핵’을 매개로 최대공약수를 찾아낸 대중운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⁵⁵⁾

1949년 4월 25일 ‘평화옹호세계대회’에서 ‘대표단수석’의 자격으로 한설야가 한 보고에에서도 전국연합대회의 기초가 반복되었다. 미국은 “새전쟁방화자들”로, NATO는 “전쟁상인들의 빨럭”으로 묘사되었다. 진영론적 사고는, “제국주의 반동진영은 군비축소와 원자력 관리 및 평화유지에관한 쏘련의 정당한 제안을 갖은 흥책으로 거부하고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났다. 한설야 보고의 결론은, “조국의 국토완정과 완전자주독립”이었다.⁵⁶⁾

54) “프레데리크·줄리오·큐리교수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평양: 국립 인민출판사, 1949).

55)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백원담·임우경,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서울: 문화과학사, 2013), 108~111쪽; 소련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각은, David P. Barash and Charles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Sage, 2002), 39~40쪽.

56) 한설야, “한설야씨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북한이 세계평화대회에 참가한 것은, 이차대전 이후의 ‘정세’와 사회주의국가의 ‘성향’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보여준다.⁵⁷⁾ ‘1957년’에 간행된 『대중정치용어사전』에는 “평화 옹호 운동”의 항목이 있을 정도다.⁵⁸⁾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현 시기의 가장 위력 있는 인민 대중의 운동이다. 제 2차 세계 대전후 얼마 안 있어 미국과 그를 추종하는 서방 침략 계층은 소련과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 음모를 강화하여 나섰는바 이것은 전쟁의 참화를 체험한 인민들을 불안케 하였다. 1949년에는 서부 열강들이 북대서양 동맹을 조작하여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켰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조성된 ‘정세’ 속에서 평화운동의 출현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운동을 사회주의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다.

57) 국제정치에서 정세와 성향을 둘러싼 논의는, J. Mercer,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58)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7), 316~317쪽. 1959년에 출간된 『대중정치용어사전(증보판)』, 296~297쪽은, 이 구절에서 미국을 “미제국주의자들”로 바꾸고, “서부 열강” 앞에 “미제를 괴수로 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미국에 대한 표현이 보다 과격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서구의 구호를 “반쏘 반공”으로 묘사하고 있다. 북대서양 동맹도 “북대서양 조약 기구(나토)”란 정식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1957년판 『대중정치용어사전』은 발간의 목적을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일상 생활과 정치 학습에서 제기되는 용어들에 대한 해명을 줌으로써 그들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한 것이라 적고 있다. 98원의 가격이 매겨져 있고, ‘80,000부’가 발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 시기의 평화 옹호 운동의 특징은 “평화는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호 하에 적극적이며 조직적인 인민 운동으로써 전쟁 방화자들의 음모를 적극적으로 폭로 분쇄하며 그들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고립시키는 데 있다. 이 운동은 처음에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것인데 그 후 사상, 신앙, 민족별을 불문하고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광범히 망라되게 됨으로써 마침내 그의 규모와 조직성에 있어서 일찍이 역사상 류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력 있는 운동으로 되었다.⁵⁹⁾

이 해설은 세계평화대회가 공산당과 지식인 중심에서 무당파적 성격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959년’ 『대중정치용어사전』에는 공산당원을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었다는 구절이 없다. 평화옹호운동의 무당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해설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계평화대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였던 핵무기의 ‘비핵무기화’는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평화운동의 보편성의 수용과 함께 북한은 평화운동의 한반도적 특수성을 ‘통일’과 연계하는 변용을 하고 있었다. 세계평화대회에서 북한 대표로 연설을 했던 한설야는 1949년 6월 귀환보고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평화옹호운동의 당면한 문제는 곧 미군을 철퇴케 하며

59) 1959년판 사전에는 “적극적으로”가 “신랄하게”로 바뀌어 있다. 1964년에 출간된 『대중정치용어사전』 3판에는, 평화는 쟁취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빠져 있다. 그 대신 북한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는 “평화주의”에 이 구절이 들어 있다. “평화주의”는 “제국주의의 존재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호도하며 정의의 전쟁까지도 포함한 온갖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평화는 전쟁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 사회 제도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고 평화를 얻기 위해 폭력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는다. 북한의 평화에 관한 마음체계의 핵심이 이 들어있다.

반동배들을 처단하여 조국의 완전한 통일독립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1949년 6월 11일 『로동신문』에 실린 한설야 귀국담의 제목은, “전쟁도발자를 반대하는 전세계 인민들의 단결은 공고하다!”였다.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운동은 곧 통일운동으로 해석된 셈이다.⁶⁰⁾

대표단 귀환 직후인 1949년 6월 27일 북한에서는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이 결성되었다. 통일운동체의 조직화였다. 북한은 이 조직을, “1946년 7월 22일에 조직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선을 일층 확대 강화하고 조국 통일의 위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더욱 강력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1949년 6월 27일에 남북 조선을 통한 71개의 애국적 민주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참가 하에 결성되었다”고 밝히고 있다.⁶¹⁾

북한적 평화개념의 대변인으로서 한설야의 목소리는 반전·반핵을 넘어 ‘민족’과 ‘자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평화를 통일과 등치한 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개념의 확장이었다. 그 형태는 미국의 “세계주의”에 대한 비판을 매개로 한 길이었다.⁶²⁾

그들의 팻쇼사상은 히틀러시대보다도 수보전진하고 있다. 히틀러리즘의 기본에는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오늘날 세계제패

60) 정용욱,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호(2014); 한설야, “평화옹호세계대회 참가귀환 보고,” 평화옹 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

61) 1949년에 출간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선언서·강령』. 이 결성대회에서는 허헌(許憲)이 보고를 했다. 1957년판 『대중정치용어사전』, 264쪽. 1959년 증보판에서는 단체의 숫자가 72개다.

62) 한설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문학예술,” 『문학예술』, 8호(1949).

를 꿈꾸는미제의 그것에는 가장위험하며 가장악질적인 세계주의(코스모포리타니즘)가 가루누어있다.

즉 그것은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노예로서의 행동의일치 귀의의일치로써 모든 국가와 수다한 민족을 자주권도 동등권도 국경도 없는것으로 일색화하려는것이니 이것이 곧 그들의 세계제패의 『이상』이며 이것의실현을 위하여 그들은 전쟁동업자를 주어 묶으면서 전쟁을방화하기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세계주의는 계급과 민족과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비하고 추상적인것으로 그것은 어떤국가도 어떤민족도 또 모든 특출한 인물들까지도 운명지어주며 결정지어주는 세계의 가장 근원적인 조류인것처럼 제국주의어용학자들은 선전하고있다. 즉그것은 세계의 모든나라와 민족들로하여금 그들의민족적 또는 국가적자주권과 자결권을 미제복무에 투입하게하는데 있어서 가장좋은방법으로되는 것이다.

한설야가 평화의 개념을 민족과 자주의 개념과 연계하면서 민족 ‘주의’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당시 북한에서 민족주의는 부정의 대상이었다.⁶³⁾

부르쥬아지는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를 푸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애국적감정에 대치시키고 있다. ... 민족주의와 세계주의는 같은 부르쥬아 이데올로기 —의 양면에 불과하다. 민족주의는 소위 『고귀하지못한』민

63) 뽀·위신쓰기, “세계주의는 제국주의 반동의 무기이다,” 정관호 옮김, 『문학예술』, 8호(1949), 60~69쪽.

족들을 마치지배하도록 운명지어있는 「선발된」민족들의 인간증오의 종론을 전도하고있다.

한설야는 그의 평론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문학예술”에서 문학의 역할과 관련하여 193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직수입한 ‘혁명적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의 결합체인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반복·‘갱신’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것은 낡은시대를 극복하고 새시대를 창조하는 생활과 현실이다. 이 생활과 현실을 생생한 자태그대로 보여주며 발전하는 현실속에 예시되는 미래의 운곽을 보여주는 문학만이 아름다울수있으며 그것만이 리얼리즘의 문학일수있는것이다.

그 혁명적 낭만주의의 대상은 선취하는 미래로서 한반도의 ‘통일’과 현재화된 미래인 ‘소련숭배’, 영웅으로서 ‘수령의 형상화’로 요약되었다. 한설야식 평화개념은 수령까지를 포괄하게 된 셈이었다.

오늘 미군을 우리강토에서 철거시키고 그앞잡이 리승만 역적도배들을 소탕할 마지막단계에돌입한 우리나라에서의 문학예술 분야를 담당한 우리들의 과업도 이에서 자명해지는것이다. 낡은것에대한 새것의 창조와 반동적 문학 예술에대한 진보적인 인민의 문학예술을 창조하는일이없이 우리는 반동을 완전히 승리할수없으며 우리나라를 높은 문화국가로 만들수없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에 대하여 비상한 존경을 가지고 있으

며 또 작품에 그리는 일을 적지않게 해보았으나 아직 그 누구도 그 영웅적 인간전형으로의 실상을 보여 주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진실로 김일성장군의 과거의 투쟁도 오늘의 사업도 실질적으로 깊이 또는 철저히 투시하지 못한데 있는 것이다.

한설야가 임박한 남침전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토완정과 조국통일독립을 목척간에 두고있”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선언과 강령의 깃발밑에 총진군하는 조선의 전체인민은 반드시야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독립의 민족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수행 쟁취하고야 말것이”라는 발언은 다시금 평화가 곧 통일이라는, 1949년 대변인으로서 한설야식 마음의 마무리였다.

4. 1949년 한설야의 단편소설: ‘복합적 마음’

1949년에 발표된 한설야의 소설은, 파리평화대회 이전에 게재된 “얼굴”과 “남매” 그리고 이후의 “자라는마을”이 있다. 이 세 작품은 1950년 3월 ‘문화전선사’에서 간행한 한설야 단편집 『초소에서』에 실렸다.⁶⁴⁾ 각각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설야의 수필이나 평론과 비슷한 평화의 마음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또 다른 마음이 보이는지를 검토해 본다. 북한의 평론가 안함광에 따르면 한설야의 세 작품은

64) “얼굴”은 1949년 『문학예술』 1호에, “남매”는 『八·一五解放四週年記念出版 小説集』(평양: 문화전선사, 1949)에, “자라는마을”은 『한설야단편집 哨所에서』(평양: 문화전선사, 1950)에 게재된 것의 인용이다. 아래에서 작품의 인용 페이지는 명기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적 민족 문화”론에 기초한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의 문학”으로, “자라는마을”은 “로동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테마로 한 작품”이고, “남매”는 “조소 친선을 테마로 한 작품”에 속한다.⁶⁵⁾

1) “얼굴”

“얼굴”의 시간은 1945년 8월 12일로, 소련군의 한반도 진주를 그리고 있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시간설정이다.⁶⁶⁾ 공간은 동해안 도시의 유치장이다. 주인공 병수는 소련군 진주 전에 일제의 유치장에 끌려갔다. 병수가 이 유치장에서 소련군의 도움으로 구출되는 것이 “얼굴”의 줄거리다. 따라서 “얼굴”의 이항대립은 부정과 긍정의 대담인 일제 대 소련으로 설정된다. 냉전이 구조화될 즈음 창작된 작품이지만, 미국이 아니라 일제와 왜놈 그리고 그 앞잡이인 형사가 적으로 등장한다. 작가의 상상력으로도, 소련의 친구로 이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반파시즘 연합의 한 구성원이었던 미국을 손에 잡히는 적(敵)으로 묘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 이항대립이 생산하는 갈등이 골간인 “얼굴”에서 소련은 구원

65)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1947.3.28)에서 “북 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 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이 채택되었고, 그 핵심 내용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 일관된 고상한 애국주의”로 “계급적 내용”과 “민족적 형식”의 결합이다. 안함광, 『조선문학사』, 367~375, 384~387, 391~393쪽. 한설야 수청 이후 출간된,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의 1978년판 『조선문학사』(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에서도 “평화적민주건설시기 문학”을 평하고 있지만, 한설야의 작품은 언급되지 않는다. 1986년에 1판이 발간된, 박중원·류단, 『조선문학개관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에서는 “평화적건설시기문학”에서는 한설야의 작품으로 김일성을 형상화한 “개선”과 “혈로”만이 언급된다.

66) 시모토타미 노부오,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28쪽.

자로 묘사된다. 마치 다가올 그날의 그대다. 그날을 기다리는 병수의 마음에는 자기희생의 결기가 담겨 있다.

오래 기다리던 무엇이 가슴에 와서 각 안겨질것만 같았다. 낮과 마치를 그린 붉은기 휘날리는 배가 들어오른 나도 억대우처럼 그짐들을 날르리.

병수를 왜놈의 유치(留置)에서 해방과 평화로 이끄는 기관차는 소련의 물리력이다. 같은 물리력도 누가 가지나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진다. 병수를 유치장으로 데려 가던 형사의 총과 달리 소련군의 물리력은, “소문에 들던 그 무서운 기동부대가 굉장한 부수레들을 몰아가지고 벼락 치듯 드리닥치는 것”으로 묘사된다. 유치장의 병수는, “도끼등으로 문걸쇠를 억대우처럼 짓모아댄다. 쇠 오그라지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가 찌렁찌렁하며 벽돌집을 요란히 울린다… 쏘련군들은 연기속에 쓸어진 사람들을 번쩍 번쩍 들어가지고 밖으로 내달림을 경험한다. 심지어, 어린 아이들은 소련군의 “반들 반들한 따발총을 살근 살근 만져”보기까지 한다.

병수에게 소련군은 ‘얼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속적 경외의 대상으로 다가온다.

쏘련군이 달려와서 억센 팔에 끄러안고 연기와 불길을 차고 밖으로 날라다주었다. 병수는 그의 속에서 벗어나 제발로 걸으라고 몇번 앙탈하듯 바둥그려 보았으나 허사였다.

유치장에서 나온 병수는, ‘목가적(牧歌的) 평화’를 느낀다. “새벽하

늘의 공기는 맑다. 병수는 가슴을 내밀며 숨을 크게 쉬었다. 해 묵은 포도주와같은 구수한 냄새가 알려지는것같았다.” 그리고 소련군의 말이 들린다. “여러분 이제 조선은 완전히 당신들의 것이요 땅도 공장도 창고도 이거리의 그어느것도 보다 조선인민의 것이요 당신들의 희망대로 나라를 세울것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지고 있으니 안심하고 각각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일들을 하시오.” 한설야의 병수는, 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인 소련군의 입을 빌려, 마치 연극의 독백처럼, 정치권력의 마음체계와 자신의 마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평화가 폭력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품’이 한설야의 “얼굴”이다.⁶⁷⁾ 좋은 폭력과 나쁜 폭력의 이분법은 시종일관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의 현실에 대한 꺾진한 묘사의 부재와, 영웅인 전형이 창출되는 과정에서의 비약은 물론 이 작품의 한계다. 소련군이 왜 북한인민을 위한 해방자인지 묻지 않는다. 소련군이 구원자라는 등식은 주어진 것일 뿐이다.⁶⁸⁾ 자생적 ‘주체’의 형성도 “얼굴”에는 없다. 나쁜 일제를 좋은 소련군이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

67) 소설(novel)이 아닌 소품(short story)이기에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 가져야 할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의 이른바 변증법적 투쟁을 묘사하지 못한다는 견해는, B. Myers, *Han Sorya and North Korean Literature* (Ithaca: Cornell East Asia Series, 1994), p.53. 이 책의 부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실패(The Failure of Socialist Realism in the DPRK)”다.

68)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예술』 1948년 4호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경구도, “일본제국주의 기반으로부터 조선인민을 해방시켜준 영웅적 쏘련군대 만세!”, “민주조선걸서에있어서 위대한 쏘련의 진정한 원조를 조선인민은 영원히잊지않으리!”였다.

2) “남매”

“남매”는 구원자 소련군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지만 “얼굴”보다 는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의 시각에서 볼 때, 진일보한 한설야의 인식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시간은 1947년 8·15 2주년 직전이고, 공간은 소련이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이다. 주인공은 젊은 철공(鐵工) 원주와 그의 동생 순이다. 둘은 조실부모 후 남매의 삶을 지탱해왔다. 일제대 소련이라는 이항대립은 “얼굴”처럼 반복되지만, 연장(延長)의 변주가 있다. 원주의 병과 치유는 구원자의 도움으로 새 주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등극한다.

원주는 “해방되던 바루전해에 왜놈들의 증병에 걸려 혼련소로 끌려갔다.” 그곳의 교관들은, “피에 주린 개승냥이”였다. “개승냥이”는 미래의 적인 미국을 표현하는 전조(前兆)다. 원주의 증오와 그 증오를 극복하고자 결의는, “왜놈을 미워하기 때문에 또는 왜놈이 남겨놓은 모든 불행을 물리치기 위하여 나는 무엇보다 건강해야하겠다. 건강을 찾는 일은 곧 왜놈을 이기는일이오 그리자면 제일왕 건강이 필요하다”로 표현된다. 죽음에서 삶으로 이행하는 매개는, “얼굴”에서처럼 소련의 힘이지만, 군이 아니라 원주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다시금 평화한 얼굴로 돌아와 환자들을” 치료하는 “크리블라크 선생”이다. 외면의 갈등을 조정한 내면의 본분이 크리블라크 선생의 얼굴에 풍경으로 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아직 사람 잡는 싸움을 꾸미는 놈들이 한편에 있는가하면 여게는 사람 살리는 거룩한 싸움이 있구나 싶었다. 조국과 세계 평화를 위한 싸움

에서 돌아온 크리블라크 선생은 오늘 조선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마땅히 어느 날 어느 곳에서도 간에 생명과 행복을 위한 싸움이여야 하리라 싶었다. 싸움도 승리도 도처에 있는 것이다.

“실로 여기에서 우리는 조소 친선 사상의 강화는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 발전을 보장해 줄 뿐만이 아니라 미 제국주의의 일련의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평화 옹호力量的 강화로도 된다는 것의 표현을 본다”는 평가를 받는 구절이다.⁶⁹⁾ 좋은 싸움과 나쁜 싸움의 이항대립, 즉 평화를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⁷⁰⁾

구원자로서의 소련에 대한 경외는 원주의 말로도 표현된다. 한설야의 상상에서 소련은 동경과 모방의 대상이다.⁷¹⁾

태양이 결코 우연히 솟을수 없는것처럼 오늘의 소련이나 그 무서운 승리들이 결코 스스로 된것이 아닌것을 원주는 이순간처럼 사모치게

69) 안광함, 『조선문학사』, 396~397쪽. 안광함은 “남매”의 평에 무려 5쪽을 할애하고 있다. 소련 의사의 도움으로 건강을 되찾은 원주와 순이가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손으로 쌓아 올려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을, “이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행동과 내정 간섭을 반대하면서 조선 문제는 조선 인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고 있는 전체 조선 인민의 결의에 대한 예술적 해명이”라고 과잉해석될 정도다.

70) 1949년 『문학예술』, 7호에 실린 方壽龍의 “平和의 소리”란 시에서도 싸움을 통한 평화의 쟁취란 인식을 볼 수 있다. “수백만 병사들이/ 불판을 달린 그것은/ 평화를 갈망한/ 인민의 지향이었고/ 모—진 총칼앞에/ 양기슴 내던 그것은 조국의 평화를 위함이었다.” 미국은 “딸라와 원자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놈들”이고, 소련은 “우리는 너에게 정의와 힘을배웠고/ 자유와 독립을 위한 길에서/ 우의(友誼)찬 손길을 잡어왔느니”란 묘사의 대상이다. 결국, “홍익한 원주 깃부 시어/지상에 영원한 평화 수놓으”고자 한다.

71) 강진호, 『한설야』(파주: 한길사, 2008), 146쪽.

느낀일은 없었다.

여기에 ‘새’ 구원자가 추가로 열거된다.

낮은 낮대로 불꽃 튀는 승리속에서 나날이 자라나고 밤은 또 밤대로
평화로운 푸른 꿈이 맺혀지는 이거리—모든 이날 어진 거래들의 길이
이리로 모이고 또 여계서 줄줄이 펼쳐진 거리, 밤에도 오직 태양인 그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거리의 아름다움, 씩씩함 ………

사회주의 건설이 과정에서 김일성이 “태양”으로 소련과 함께 하는
셈이다. 그가 주는 밤의 “평화로”움은 낮의 ‘투쟁’, 즉 건설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도약은 “얼굴”과 “남매”를 구분하는 지점이다. 초월
적 영웅의 ‘새’ 탄생이다.

원주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매개하는 두 구
원자가 존재하는 셈이다. 원주와 원주를 먼발치에서 병수발하는 동생
순이, 그리고 원주를 소련이 운영하는 적십자병원에 입원시킨 친구들
모두 집합적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두 구원자를 매개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다. 순이의 오빠에 대한 지극 정성은, ‘소작농’ 부모를
둔 ‘가족’이란 주어진 사회형태에 대한 긍정의 의미도 주고 있다. 예
를 들어 “원주는 요행 동무들의 도움으로 적십자병원에 입원하게 되
었으나 그것으로도 순이의 발바닥에서 불이 꺼질수는없었다”는 표현
이 그것이다. “어두운 세월 속에서 맺어진 남달리 뼈에 사무치는 동
기간의 애절한 사랑”이 언급된 다음 도약이 있다. 순이는 오빠의 병
간호를 하면서도, 일제시대에 중단했던 인민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
다. “새조선의 운명을 걸머쥔 귀중한” 딸로 성장한 것이다. 병수는

순이가 “제손으로 쌓은 승리”를, 즉 “이겼다”를 강조하며 “이 승리를 이 승리를 있게해준 바뀌어진 조국을 그 조국의 하늘을 그는 다시금 우리(르며) 태양은 분명 모든 인민의 것이었다”고 되뇌인다.

병에서 회복하는 원주가 친구들과 편지를 통해 스스로를 “당당한 전사”로 규정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때, 그는 새 조국의 건설을 평화 만들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 와중에 추상의 적 미국이 “원자탄”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우리에게 이 발전과 장성이 있는한 미국놈들의 원자탄도 그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공장에서도 농촌에서도 한결같이 원쑤를 칠 불덩이를 제손으로 만들어 제 어깨에 걸머지고 날마다 날마다의 싸움속에서 원쑤를 치는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부정의 싸움을 긍정의 싸움으로 바꾸는 계기는, 바로 ‘새 기술’이다. 이미 철공 원주는, 이미 “오리우리하게 크고 유착스러운 선반 그것만이 자기의 모든 근심 걱정을 옥천바삭으로 갈아버릴것이라” 다짐한 바 있다. ‘탈식민(脫植民)’의 의지도 새 기술로 표현된다.

열성이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고 있는 그사실이다. 하나의 기술에서 우리는 백천의 많음과 큼을 상상 할수 있고 또 실현할수 있다. 우리공장은 왜놈들이 파괴한것을 도루 복구한다거나 또 그기술을 그대로 답습하고 연장하고 있는것만은 결코 아니다. 우리 노동자들 자신이 우리의 새기술을 창안 해내고 있는것이다. 그러기때문에 우리의 새 기술은 아직 어리나 왜놈들보다 위대한 것이다.

북한에서 ‘비날론’의 도시 함흥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카바이트에서 반드시 섬유를 뽑아내는 기술조선이 올것을 우리들은 확신한다”는 순간, 그 일을 깊어질 원주는 마음의 성장을 통해 각성된 청년주체로 서게 된다.

3) “자라는마을”

한설야의 세계평화대회 참가 이후의 작품인 “자라는마을”의 시공간은, “해방삼주년이 아직 달포나 남아있”는 북한의 국가수립 직전의 ‘농촌’이다. 더 이상 소련의 개입이 없는 공간설정이다. 소련의 빈자리는 김일성이 대신한다. ‘무구지(황무지)’를 개척하는 새 농촌의 건설 과정에서의 이항대립은 이기성 대 이타성으로 발현한다. 인물로는 일제시대에 농업학교를 나와 당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는 최기수 대 새 농민인 주인공 수길이가 금복이와의 사랑까지를 포함한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최기수의 성품도 이항대립적으로 묘사된다. “본시 최기수는 모든것을 ‘내것’과 ‘남의것’으로 갈라놓고 노는 버릇이있다”는 것이고, 좋아하는 여자를 볼 때도 “응, 내것, 저떡이 내떡이렸다”한다는 것이다.

수길의 여자친구 금복의 어머니는 문맹이다. 그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데 첫 단어가, “김 일 성 장 군”이다. 이해하는 방식은, “김일성장군 만세 지 무시기냐. 그건 나두 안다. 집집마다 그 글방 양이 붙은 집 있다되”다. 두 번째 단어는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헌법 만세!”다. 북한적 냉전체제의 마음체계인 제국주의진영 대 민주주의진영의 대립 구도가 인민의 입말로 묘사된다.

정말 이제 완전자주독립국가가 된다구들 기뻐하였다. 이승만이들 도 적개무기라 오라지않아 불맞은 짐승처럼 곤두박질을 치다가 똥싸고 버 두러질것을 상상하고 사람들은 통쾌해하였다. 그리고 또 이도적들의 놈 의 새끼들도 쇠부살만한 코를 싸쥐고 물려갈것이라고들 하였다.

이승만의 의붓애비 미국놈들은 쩡향에 선 수숫대처럼 키만 멋없이 덜렁 커서 저 으릉으릉 우는 발전소 송전선에 새워놓고 그놈의 모가지 를 한번씩 슬적슬적 대주기 좋을것이고 그러면 당장 불에 떨어진 메뚜 기처럼 버둥거리다가 죽을것이고 금복어머니도 우스개를 한일이 있다. 그만치 금복어머니는 미국놈이라면 천질색이다.

이승만과 미국을 경험하지 못한 금복어머니에게서 나오는 말들이 다.⁷²⁾ 한설야가 파리평화대회 참가 이후, 냉전적 마음체계와 평화를 통일과 등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추상의 적 미국이 “미국놈들”로 전변되는 순간이다.

북한 스스로 자기를 정의하는 ‘민주주의’는, 독립과 적대의 종료와 건설이다. 인민들이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금복어머니의 말이다.

그래 민주주의가 좋지 앙이문 나뿌단 말이나 없던 내나라가 생겼으 니 좋지

72) 이 지점에서 생각해볼만한 하나의 가설이 있다. 현실에서 부정과 긍정의 인물이 대립하고 그 대립이 소련이란 상위의 꼭짓점을 통해 해소되는 한설야적 이등변 삼각형 구도에서, 소련도 미국처럼 외세라 할 때, 소련을 대체하는 ‘태양’은 소련과 충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사각형 구도의 불가능성에 대한 생각이다.

내무 식해서 모르긴하겠지만 민주주의란기 다른기 앙이드라. 제일 미운기 다없어지구 백성덜이 보구싶구 하구싶구 가지구 싶든기 모래밭에서 무이 뽑듯 하나씩 들씩 척척 나오고 양겨지는기더라.

이른바 민주주의를 기초로 평화인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소련의 제안이 언급된다.

금년정초에 소련군대와 미국군대가 함께 우리나라에서 나가자는것을 소련이 말했는데 미국놈들이 앙이 들었담메. 그리구 이승만어랑 그놈들이 미국놈 나가지 말라구 의붓애비 흥패매구 춤추듯 미쳐 돌아가구 있담메. 소련말대로 했으면 벌써 미국놈들이 나나갔을기 앙임메.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미국의 거부 때문이라는 인식의 일단이다. 금복은 무력통일을 암시하는 발언도 한다.

우리를 못살게구는 놈들을 우리 손으로 두들겨 쫓아야지 별수없음메. 그러니 인제 정말 정신 차리구 공부합세.

공부와 건설을 통해 통일의 길을 가야 한다는 논리다. 북한 내부의 평화는 외적으로 통일의 기초가 된다.

건설과정인 무구지 개척의 노정에서는 이기와 이타의 싸움이 전개된다. 역사적 사실로서도 흥미로운 부분은, 북한 초기 농촌지역의 세금형태였던 ‘현물세(現物稅)’를 물어야 하기에 증산을 안 하는 이기적 모습의 묘사다. 이타적 인물의 전형으로 수길이가 성장하면서 무구지를 개척하는 자리는마을에서의 갈등은 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

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차이에서 비롯된 대립도 연대를 매개로 감동적인 언술로 포장된다. “농민들이 나가는 길에서 학생들이 노래를 불러주기는 아마 개벽 이래 처음일것이다”는 말에서 건설의 연대의 필요성이 읽힌다.

그 과정에서 경쟁에 대한 긍정도 배치된다. 경쟁이 협력을 만든다는 인식이다.⁷³⁾

아래웃 반이 서루 지지말랴고 맹렬히 경쟁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서루 경쟁하면서도 돕는기구 그런데서 발검음이 빨라지는기요.

사랑조차 경쟁을 통해 성숙해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수길이 금복에게 하는 사랑고백은, “너와 나와는 일생을 경쟁할기다”이다.

마무리는 김일성이다. “한글학교에는 김일성장군에게 보내는 여러 장의 감사문이 들어왔다”는 언급이 작품의 중간에 등장하고, “자라는 마을”의 종지부의 노래는, “민주조선 창건하는 장엄한 새날의 투사다 … 건설의 노래 우렁차게 김장군 두레에 뭉치자”이다. 이 작품을 “새 환경에 적합한 새 방법”으로 해석하는 ‘새’가 김일성으로 귀결되는 형국이다.⁷⁴⁾

73) 안함광은 이 경쟁에 기초한 협력을, “민주주의적 협동적 사상”이라 부른다. 안함광, 『조선문학사』, 387쪽.

74) 위의 책, 387쪽.

5. 계속 작업을 위하여

한설야가 파리세계평화대회에 참여하고 그 전후로 소설을 생산하는 1949년 봄부터 가을까지 제국주의진영 대 민주주의진영이라는 소련판 냉전적 마음체계를 수입한 북한의 지도부는 평화를 통일과 등치하는 사유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9년 가을까지도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과 박헌영의 전쟁의사에 반대하고 있었다.⁷⁵⁾ 한설야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대변인’으로서 한설야는 평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민주제도와 사회주의제도에 서 비롯되는 것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반도적 맥락에서 평화를 통일로 등치하면서, 전쟁을 통한 평화와 통일의 길에도 동의하고 있었다.

반면 한설야의 소설에서 평화는 정형화를 넘어서 있었다. 개인의 내면에서 비롯되는 평화가 “얼굴”과 “남매”에서는 돌출된다. “자라는마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북한국가의 내면인 건설이 평화를 만들어 간다는 인식도 보인다. 이 두 내면의 평화는 폭력적 방법에 의한 평화와 충돌한다. 개인과 국가 내면의 평화가 외면에서의 전쟁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마음의 전변은 한설야 개인에게 모순으로 남을 수 있지만, ‘대변인’ 한설야는 이 모순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약 이 모순을 꿰뚫히게 그리는 소설을 생산했다면, 정치인으로서 그의 지위는 위협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49년 8월일 소련은 카자흐스탄 사막지역에서 지상폭발의 형태로 핵실험에 성공했다. 미국의 핵무기에 맞서는 소련의 세력균형정책이었다. 소련의 핵실험 사실이 공식화된 1949년 9월 북한은 “쏘련에

75) 시모토마이 노부오, 『모스크바와 김일성』, 90~96쪽.

서의 「원자폭발사건」에 관한 따쓰의 공식보도”를 언급한 후, 9월 29 일에는 ‘북조선직총’과 ‘북조선민청’ 중앙위원장의 명의로 미국과 영국이 소련의 핵실험에 당황하고 있고, 소련의 핵실험이 “인류행복에 기여한다”는 반향을 1면에 보도한 바 있다. 반전·반핵의 구호가 실종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1949년 9월에는 소련과 공산주의로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되는 박창옥이 ‘북조선로동 당 선전선동부장’의 직함으로 “쏘련의 원자무기소유는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될 것이”란 발언을 할 정도였다. 반전·반핵을 주요 내용으로 했던 평화개념의 또 다른 전변이었다.⁷⁶⁾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의 와중에도 소설가 한설야는 세계평화대회와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된 평화대회에 참여했다. 1949년과 마찬가지로 “전별”, “승냥이”, “대동강”, “황초령”, “땅크 214호”, “력사”와 같은 소설들과 평화와 관련된 수필을 생산했다.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미와 평화 그리고 김일성의 형상화를 주제로 한 소설과 수필들에서 한설야의 평화의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다음의 과제다.

■ 접수: 11월 15일 / 수정: 12월 5일 / 채택: 12월 15일

76) 소련의 핵실험이란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금지를 향한 북한판 평화운동은 계속되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1950년 3월 3일 “평화옹호 세계 위원회 평화제의 호소문에 관하여”란 결정을 채택했다. 세계평화대회 상설위원회 호소문의 주요 내용은, “군비 및 병력을 축소하며 원자무기를 금지하며 강대국간의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80쪽. 당시 『로동신문』 기사를 보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최경덕, 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대표 김익두, 대의원 리기영 등이 토론을 했다고 한다.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 『대중정치용어사전(증보판)』(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대중정치용어사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7).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선언서·강령』, 1957년판.
『조선말대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조선문학사』(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8).
『조선문화어건설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회관계사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조선어 철자법』(평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 화국과학원, 1954).
『조선중앙년감 1951~1952』(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2).
『朝鮮中央年鑑 國內篇 1949』.
김일성, 『김일성전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박증원·류만, 『조선문학개관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신연갑, 『주체의 인테리리론』(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6).
崔昌益, 『朝鮮民族解放鬪爭史』(平壤: 金日成綜合大學, 1949).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2) 논문과 소설과 시

- “새로규정한우리글의떠어쓰기,” 『친리마』, 6, 7, 8호(2000).
“프레데리크·졸리오·큐리교수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 세계대회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김룡준, “한설야와 장편소설 『력사』,” 『사회과학원학보』, 82호(2014).
김일성, “쓰런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있는 우리나라 류학생들과 한 담화,” 『김일성전집』, 제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_____, “북조선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전

- 집』, 제7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김일성전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희중, “미제의 침략에 의한 남조선의 참상,” 『근로자』, 제3호(1958.3.1).
- 드·브·레빈, “외교의 개념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인민』, 3월호(1949)[『북한관계사료집』, 3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에서 인용].
- 박현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관하여,” 『인민』, 2월호(1949)[『북한관계사료집』, 37권(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2)에서 인용].
- 方壽龍, “平和의소리,” 『문학예술』, 7호(1949).
- 쁘·위신쓰기, “세계주의는 제국주의 반동의 무기이다,” 정관호 옮김, 『문학예술』, 8호(1949).
-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 전국연합대회 선언,” 『평화옹호세계대회 문헌집』(평양: 국립인민출판사, 1949).
- 한설야, “파리기행: 제1차 세계평화대회를 중심으로,” 『한설야선집: 수필』(평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 _____, “한설야씨의 보고,” 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평화옹호세계대회 문헌집』.
- _____, “남매,” 『八·一五解放四週年記念出版 小説集』(평양: 문화전선사, 1949).
- _____, “얼굴,” 『문학예술』, 1호(1949).
- _____, “자라는마을,” 『한설야단편집哨所에서』(평양: 문화전선사, 1950).
- _____,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문학예술,” 『문학예술』, 8호(1949).

3) 신문

『로동신문』(1952)에 연재된 『대동강』.

4) 기타 자료

『근로자』, 제3호(1958.3.1).

『문학예술』, 4호(1948).

2. 국내자료

1) 단행본

- 강진호, 『한설야』(과주: 한길사, 2008).
- 개디스, 존 루이스(John Lewis Gaddis),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거짓말, 그리고 진실』, 정철·강규형 옮김(서울: 에코리브르, 2010).
-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서울: 후마니타스, 2015).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과주: 문학동네, 2009).
- 남원진, 『한설야의 욕망, 칼날 위에 춤추다』(광명: 도서출판 경진, 2013).
- 노부오, 시모토마이(下斗米伸夫), 『모스크바와 김일성: 냉전기의 북한 1945~1961』, 이종국 옮김(서울: 논형, 2012).
- 대닛, 대니얼(Daniel C. Dennett), 『마음의 진화』, 이희재 옮김(서울: 사이언스북스, 2006).
- 라우, 리디아(Lydia H. Liu), 『언어횡단적 실천』, 민정기 옮김(서울: 소명출판, 2005).
- 랑시에르, 자크(Jacques Rancière), 『문학의 정치』, 유재홍 옮김(고양: 인간사랑, 2009).
- 레닌, 블라디미르 일리히(Vladimir Il'ich Lenin), 『제국주의론』, 남상일 옮김(서울: 백산서당, 1988).
-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서울: 나남, 1996).
- 백원담·임우경,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서울: 문화과학사, 2013).
- 안함광, 『조선문학사』(연길: 연변교육출판사, 1957).
- 정병준, 『현앨리스와 그의 시대』(과주: 돌베개, 2015).
- 중국중앙공산당사연구실, 『중국공산당역사』, 상권, 홍순도·홍광훈 옮김(서울: 서교출판사, 2014).
- 진은영, 『문학의 아토포스』(서울: 그린비, 2014).
- 폴리코르, 『텍스트에서 행동으로』, 박병수·남기영 편역(서울: 아카넷, 2002).
- 韓雪野, 『英雄金日成將軍』(釜山: 新生社, 1947).

2) 논문

-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제 17권 1호(2014).
- _____, “미·중패권경쟁, 한국의 길은?” 『창비주간논평』(2015.3.25).
- 기광서, “북로당 창설 과정에 대한 검토,” 2014북한연구학회동계학술회의 발표문.
- 김철민, “코민포름 분쟁(1948)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시각과 대응전략,” 『슬라브연구』, 18권 1호(2002).
- 김영호, “탈냉전기 냉전 기원의 새로운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 35집 제2호(2001).
- 김철민, “코민포름분쟁(1948)에 대한 유고슬라비아의 시각과 대응전략,” 『슬라브연구』, 18:1(2002).
- 김태우, “냉전 초기 사회주의진영 내부의 전쟁·평화 담론의 충돌과 북한의 한국 전쟁 인식 변화,” 『역사와 현실』, 제83호(2012).
- 미스히코, 기무라(木村光彦)·아베 게이치(安部桂司),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서울: 미지북스, 2009).
-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핵의 국제정치』(서울: 경남대출판부, 2012).
- 유임하, “북한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 『한국어문학연구』, 57집(2011).
- 이민영, “1947년 남북문단과 이념적 지형도의 형성,” 『한국현대문학』, 39권(2013).
- 이삼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 전후 동아시아질서의 개념적 재구성과 ‘냉전,’” 『냉전과 동아시아분단체제』, 한국냉전학회창립기념학술대회(2015.6.25).
- 정성임, “북·러 관계,” 『북한의 대외관계』(과주: 한울, 2007).
- 정용욱, “6·25전쟁 이전 북한의 평화운동,” 『역사비평』, 106호(2014).
- 채오병, “식민구조의 탈구, 다사건, 그리고 재접합: 남한의 탈식민국가형성, 1945-1950,” 『담론201』, 13권 1호(2010).
- 청카이(程凱), “평화염원과 정치동원: 1950년의 평화서명운동,” 백원담·임우경, 『‘냉전’ 아시아의 탄생: 신중국과 한국전쟁』(서울: 문화과학사, 2013).
- 하영선, “근대 한국의 평화개념 도입사,”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사회과학개념형성사』(과주: 창비, 2009).

3) 신문

전중환, “내속에 ‘나’는 없다,” 『경향신문』, 2015년 11월 18일.

3. 국외자료

1) 단행본

Barash, David P. and Charles Webel, *Peace and Conflict Studies* (London: Sage, 2002).

Daniels, R.(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New York: Random House, 1960).

Leffler, M.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Mercer, J., *Reputation & International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Myers, B., *Han Sorya and North Korean Literature* (Ithaca: Cornell East Asia Series, 1994).

Ovsyany, I. D. et al., *A Study of Soviet Foreign Policy*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75).

Rowlands, M., *The New Science of the Mind: From Extended Mind to Embodied Phenome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2010).

Wittner, L., *One World or None: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Through 1953*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2) 논문

Burke, K., “Literature as Equipment for Living.” *Direction 1*, Reprinted in D. Richter(ed.), *Classic Texts and Contemporary Trends* (Boston: Bedford Books, 1998).

Callahan, K., “The International Socialist Peace Movement on the Eve of World War I Revisited: The Campaign of ‘War Against War!’ and the Basle International Socialist Congress in 1912,” *Peace & Change*, Vol.29, No.2(2004).

“Cominform Resolution and Manifesto,” *Current History*, Vol.13, No.76(December, 1947).

Deery, P., “The Dove Flies East: Whitehall, Warsaw and the 1950 World Peace Congress,”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s & History*, Vol.48, No.4(December 2002).

- Fay, S., "The Cominform," *Current History*, Vol.14, No.77(January, 1948).
- Hitchcock, W., "The Marshall Plan and the Creation of the West," in M. Leffeler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 Holloway, D., "Nuclear Weapons and the Escalation of the Cold War, 1945-1962," in M. Leffeler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http://wasi.alexanderstreet.com/help/view/the_womens_international_democratic_federation_widf_history_main_agenda_and_contributions_19451991.
- Park-Kang, S., "Fictional IR and Imagination: Advancing Narrative Approach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41(2015).
- Pechatnoy, V., "The Soviet Union and the World, 1944~1953," in M. Leffeler and O. Westad(eds.), *The Cambridge History of the Cold War: Volume I Origi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 "Report on the Communist 'Peace' Offensive; A Campaign to Disarm and Defeat the United States," Prepared and Released by the Committee on UN-American Activities, U.S. House of Representatives, Washington, D.C.(1951.4.1).
- "Soviet Cultural Policy-the Liberal Period,"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New York: Random House, 1960).
- Stalin, J., "Stalin on Socialism in One Country,"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New York: Random House, 1960).
- _____, "Stalin on the Two Camps,"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
- Wernicke, G., "The Unity of Peace and Socialism? The World Peace Council on a Cold War Tightrope Between the Peace Struggle and Intrasystemic Communist Conflicts," *Peace & Change*, Vol.26, No.3(2001).
- Zhdanov, A., "The 'Cold War' and the Cominform," in R. Daniels(ed.), *A Documentary History of Communism* Vol.II.

North Korean Novelist Han Sōrya Talks of Peace in Paris, 1949

Koo, Kab Woo(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North Korean delegates went to Paris to participate at the formation of the World Peace Council's anti-nuclear peace movement in 1949, just one year before war broke out in Korea. Han Sōrya, a renowned novelist as well as a member of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in North Korea, delivered a peace advocacy speech at the congress in his capacity as the head of the delegates. This paper explores an "old" future of North Korean peace diplomacy through a review of the Han Sōrya literature circa 1949.

Keywords: North Korea, Han Sōray, peace, peace movements, mind,
literature